

## 신라 마립간 시기에 이입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문물

### 강사 소개



#### 강사: **함순섭** 국립경주박물관장

경북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고인류학과에서 고고학 석사학위를 마쳤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두루 근무하였고,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이다. 삼국시대 능묘와 금공장신구를 주로 연구하며, 부차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고학 활동을 공부하고 있다. 주요저서는 “한국생활사박물관 발해·가야생활관”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등이 있다.

### 강의 요약

신라 마립간시기에 조영된 능묘에는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에서 들어온 외래문물이 묻혔다. 기성품으로 들어온 외래문물은 그 계통이 다양한 게 특징이다. 이를 두고 신라가 다양한 권역과 직접 교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억지스럽다. 계통의 다양성은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심권역이 집합한 외래문물을 일관된 교역체계 안에서 주변 권역으로 다시 유통시켰음을 반증한다, 즉 신라 마립간시기의 서역계 외래문물은 중국 중원과의 대외교섭을 통해 2차적으로 이입된 것이다. 아울러 신라 마립간시기에는 위세경제가 체계화된 때였으므로, 외래문물은 왕경에 집중되었다. 신라 왕경과 주변 지역 사이에는 위세경제에서도 차별이 있었고, 외래기성품은 왕경의 최상위계층에게만 나눠준 위세품이었다.